



지난해 열두 번째 우승을 일궈낸 호랑이들 군단이 KBO 리그 2연패라는 목표를 품고 미국으로 떠났다. 전남일보는 새 시즌을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 만반의 준비에 돌입할 KIA 타이거즈 선수단의 각오와 다짐을 들었다. 편집자주

‘2연패 도전’ 호랑이들 “철저한 준비... 우승 한 번 더”

내야수 김도영 “성적 유지가 아닌 ‘발전 목표”

외야수 나성범 “개막전 선발 출장으로 건강 입증”

지난해 대기록 퍼레이드를 바탕으로 KBO 리그 MVP와 골든글러브(3루수 부문)까지 거머쥔 김도영에게 모든 영광은 과거일 뿐이다. 이제 기쁨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 스프링 캠프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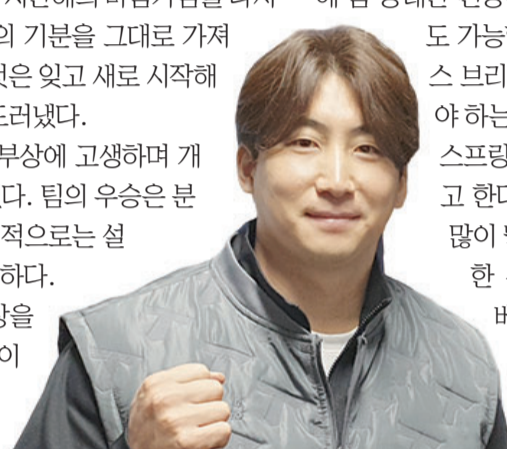


김도영은 “지난해 우승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지웠다”며 “올해 우승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이 높은 순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프로 3년 차였던 지난해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음에도 굵직한 대기록을 달성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김도영은 “개인 성적 유지되지만 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유지가 아

닌 발전을 위해 훈련하기에 더 높은 기록을 목표하겠다”며 “40홈런-40도루를 욕심내지는 않겠다. 한 경기 한 경기에 충실하다 보면 기록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KIA 타이거즈는 김도영에게 지난해 1억원에서 40% 인상된 5억원의 연봉을 안기며 구단 통산 최고 인상률과 KBO 리그 4년 차 역대 최고 대우를 안겼다. 지난해 활약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올해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이기도 하다. 그는 “최고 대우를 해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강해졌다. 연봉에 맞게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며 “KBO 리그 역대 최고 인상률은 솔직히 불가능한 기록이기에 기대하지 않았다. 구단의 대우에 감사할 뿐이고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장 선임 첫해인 2024시즌 ‘우승 캡틴’에 등극한 나성범이 다시 한번 리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건강을 바탕으로 개막 엔트리 진입은 물론 KBO 리그 2연패까지 이루겠다는 다짐이다.



나성범은 “2연패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올해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지난해의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며 “우승의 기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잇을 것은 잇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나성범은 최근 2년간 부상에 고생하며 개막 엔트리 진입이 불발됐다. 팀의 우승은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설욕이 필요한 시즌이기도 하다. 그는 “모두가 항상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두가 건강하다면 충분히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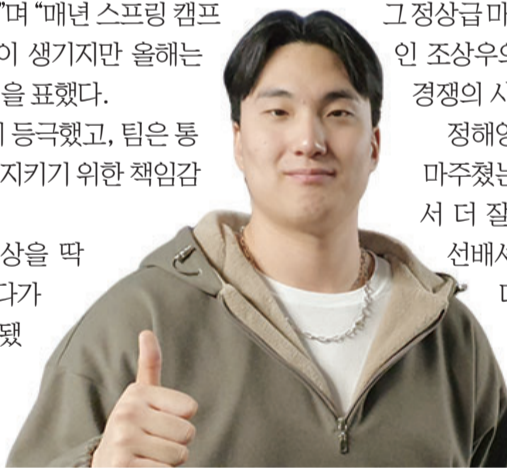
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막 엔트리에서 2년 연속 제외됐기 때문에 올해는 꼭 진입하고 싶다고 의욕을 표했다.

개막 엔트리 진입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목표다. 공격과 수비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선수기에 몸 상태만 건강하다면 충분히 개막전 선발 기용도 가능한 전망이다. 나성범은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빠진 외야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중책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달리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하체는 많이 뿔수록 강해진다”며 “외야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장이나 베테랑이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다. 모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잘 유지한다면 올해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투수 정해영 “올해도 직접 챔피언의 마침표를”

외야수 김석환 “독한 마음으로 외야 주전 발돋움을”

지난해 직접 한국시리즈 우승에 마침표를 찍으며 ‘행가래 투수’에 등극한 정해영은 올해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다. 이범호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에서 더 강해진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다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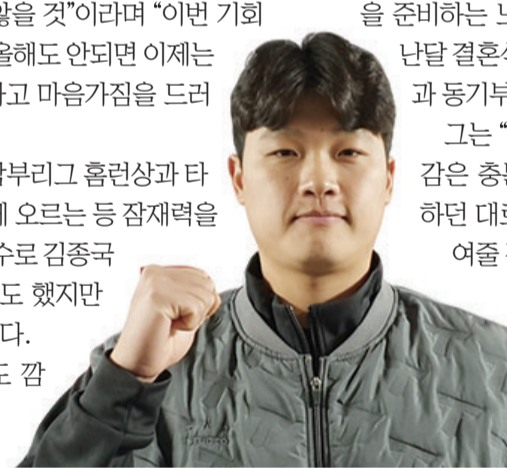


정해영은 “올해는 더 잘해야 한다. 제가 잘 해야 팀도 다시 정상에 설 수 있다”며 “매년 스프링 캠프를 시작할 때부터 책임감이 생기지만 올해는 더 큰 것 같다”고 마음가짐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세이브왕에 등극했고, 팀은 통합 우승을 이뤘다. 정상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공존한다. 정해영은 “우승하고 영상을 딱 한 번 봤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한 번 더 보게 됐다. 올해 우승을 못 하면 정말 허전할 것 같고,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야

구가 계획대로만 된다면 10개 구단이 모두 전승 우승을 할 거다. 변수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A 타이거즈는 지명권 및 현금 트레이드로 키움 히어로즈에서 조상우를 영입하기도 했다. KBO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이자 국가대표 필승조인 조상우의 가세는 정해영에게는 새로운 경쟁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해영은 “비시즌에 감독님을 우연히 마주했는데 ‘네가 9회다’라고 말씀하시어서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워낙 대단한 선배여서 같이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프링 캠프에서 피칭 디자인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 제3구종인 포크볼이나 커브도 완벽히 장착해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프로 9년 차를 맞은 김석환이 다시 한번 ‘거포 유망주’의 꼬리표를 떼는데 도전한다.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더욱 커진 책임감으로 주전 외야수 발돋움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김석환은 “독하게 마음먹었다. 젊은 나이가 아니기에 기회가 계속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올해도 안되면 이제는 정말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 퓨처스 남부리그 홈런왕과 타점상을 거머쥘며 2관왕에 오르는 등 잠재력을 입증했다. 외야수와 1루수로 김중국 감독이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유독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김석환은 “제 스스로도 짝 발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부상으로 보여준 것이 없어서 스

프링 캠프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며 “비시즌에 타격에 집중해서 준비를 잘했기에 시범경기 때는 꼭 보여줄 자는 마음이었는데 미국에 가게 돼서 좀 더 좋은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이제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든 만큼 새 시즌을 준비하는 노후가 생기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결핵 치료를 올리면서 남편이라는 책임감과 동기부여도 새로 만들어졌다. 그는 “비시즌에 준비를 잘 했기에 자신감은 충분하다. 오버해서 보여주기 보다 하던 대로 한다면 준비한 것을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며 “주변에서 결혼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많이 덕담을 해주다. 올해 72경기 이상을 선발로 뿔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글: 사진=한규빈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강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4타경 76264	1	광산구 월계동 880-1 503㎡	대	4,926,926,080	일괄매각, 제외건물 및 수목매각 포함
2024타경 79652	1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60-47 1층80.45㎡, 2-6층각185.06㎡ 지하1층353.22㎡ 제외의 창고등622.5㎡ [물건번호1:종**로부터매각부동산에대항수리공사대금60,500,000원유치권신고사채출, 성립여부불명]	대	4,926,926,080	일괄매각, 제외건물 및 수목매각 포함
2024타경 87493 [중복]	1	남구 월산동 245-7 68㎡ [공유지정해인1/4지분전부]	대	33,545,465	일괄매각, 지분매각 포함
2024타경 82696	1	남구 수박동로 63 1층일출물점및주력, 2층주력각48.81㎡ [공유지정해인1/4지분전부] 제외의 창고2㎡ [물건번호1:지상중**소유일건출몰대정존재, 주력19.47㎡ 현황소재불명]	대	33,545,465	제외건물 포함, 공유차우선매수권 1회제한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4타경 7268	1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1층 비-109호 [빛가람동, 계도333지식산업센터] 76,7000㎡ [각호별식별번호및건축물현황도상특징가능한경로조사]	근린시설	358,000,000	110,111호구분건물벽체 구분없이 일체로이용
2024타경 7268	2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1층 비-110호 [빛가람동, 계도333지식산업센터] 76,7000㎡ [각호별식별번호및건축물현황도상특징가능한경로조사]	근린시설	358,000,000	109,111호구분건물벽체 구분없이 일체로이용
2024타경 8292	1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1층 비-111호 [빛가람동, 계도333지식산업센터] 76,7000㎡ [각호별식별번호및건축물현황도상특징가능한경로조사]	근린시설	358,000,000	109,110호구분건물벽체 구분없이 일체로이용
2024타경 8292	1	북구 서하로183번길45-6, 2층 201호 [오피스텔, 오지동갤럭시하임] 21,3389㎡	오피스텔	45,000,000	45,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치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행될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에는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금액으로 본다.

2. 매각결정일: 2025. 2. 11. (화) 10:00

3. 매각결정일: 2025. 2. 18. (화) 16: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법원법정

5. 매각방법: 입찰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일입찰방식에 따르면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해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봉투에 부착하여 법원법정에서 개찰한다. 개찰일에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개찰결과에 따라 입찰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가격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며, 입찰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③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④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⑤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⑥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⑦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⑧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2025. 1. 2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희산